

A-4. 치주질환 환자에서 흡연이 외과적 치주수술을 포함한 치주치료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윤정식*, 장문택, 김형섭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흡연을 하는 환자는 비흡연 환자에 비하여 치주병 발생율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흡연이 치주질환의 치료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현 연구의 목적은 흡연이 외과적 수술을 포함한 치주치료 후 최소 2년의 유지치료 기간을 거친 후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치주치료 전과 외과적 치주치료 후의 치주낭 깊이의 변화와 방사선상의 골높이의 변화량, 치료 기간 도중의 발치율을 흡연군과 비흡연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흡연이 치주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대구치부와 소구치부의 두 부위로 나누어 치아군에 따른 변화량의 차이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전북대학교 병원 치주과에 주기적 재내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5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이며 중등도 이상의 치주병으로 전북대학교 병원 치주과에서 구강위생 교육과 일차적 치주치료 및 외과적 치주수술을 받은 환자이며 외과적 치주수술 후 최소 2년 이상 1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 재내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초진시와 재내원시에 치주낭 깊이 측정, 구강위생상태 (O'Leary et al. 1972) 조사, 방사선 사진 검사에 의한 골소실량 등의 임상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흡연환자와 비흡연환자 사이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 치료 기간과 유지 기간의 발치율은 흡연군에서 비흡연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구치가 소구치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2. 치주낭 깊이는 치료 전에는 흡연군과 비흡연군, 대구치와 소구치 사이에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으나 치료 후 흡연군에서 비흡연군에 비하여 더 적은 치주낭 감소량을 보였고, 대구치에서 소구치에 비하여 더 적은 치주낭 감소량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였다.
3. 방사선 사진 검사 결과 흡연군에서는 방사선 사진상 골소실흡연군에서는 방사선 사진상 골획득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였다. 그러나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소구치와 대구치 사이의 변화에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